

선지식을 찾아서



해남 스님(통도사 영축율원 율주)

1943년 창녕에서 태어나 1963년 창녕 관룡사에서 입산했다. 1967년 월하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1970년 석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하고 범어사 강원을 졸업했다. 묘관음사, 극락암 선원 등 5하안거를 성만한 스님은 1977년 대흥사 강원에서 운기 스님에게 전강했다. 일본 다이쇼대(大正大学)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해인사, 범주사,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와 은해사종림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불보종찰 통도사 율주로 후학 양성과 <유행경> 등 불전 번역에 정진중이다.

“五戒만 잘 지키면 부처”

늦더위를 피해 양산 통도사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로 통도사 경내 도로는 번잡했다. 일주문 지나 영축율원이 위치한 취운암까지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거리다. 피약벌에 화탕지옥처럼 전국이 들끓는 때, 일요일을 맞아 발걸음 찾는 불자는 부처님 법으로 더위를 잊고, 계곡 찾은 대중은 더위를 식혀 부처님 가피를 느끼는 통도사 도량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영산회상이었다. 율사였던 신라시대 자장 스님은 영축산에 통도사를 창건했다. 자장 스님이 통도사라 이름한 것은 만법을 통달해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

다. 향곡 스님은 “절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거절했다. 하는 수 없이 묘관음사 입방을 포기하려다 입승스님의 배려로 우여곡절 끝에 절제 중에 묘관음사에서 안거할 수 있었다. 3대 관음도량인 남해 보리암·양양 낙산사 흥련암·강화 보문사와 통도사를 제외한 4대 보궁을 두루 다니며 기도 정진한 스님이 인천 용화사에서 안거하던 때다. 1970년 세계불교대회때 전강 스님과 경봉 스님이 나는 범거랑을 보고 경봉 스님이 주석한 통도사 극락암을 찾았다. “몇 천 선방살이를 했지만 혼침(昏沈·몽롱함)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신통이 사라졌어요. 때로는 모르는 것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머리로 알려고 할수록 수행과는 멀어집니다.” 해남 스님의 교육은 ‘자조(自助)·자주(自主)·자립(自立)’에 바탕한 교육으로 덕망 높다. ‘스스로(自)’를 강조한 교육 이념은 계율에 대한 스님의 설명에서 드러난다. “‘sila’를 번역한 ‘계’는 스스로에 대한 맹세(自誓)로 좋은 습관을 스스로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 재세 시에는 불자들이 ‘오계를 지키며 살기를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맹세하고 부처님이 잠자코 승인하시는 것으로 계가 성립됐지요. 자기 뜻에 의한 것이기에 계는 강제성이 없어요.”



자조·자주·자립 바탕한 교육돼야 “서울의 4대문에도 5계 담겨있어”

과 산행이 인도 영축산과 통한다 뜻 외에 전국의 모든 스님이 금강계단(金剛戒壇)에서 계를 받아 득도(得度)한다는 뜻이었다. 지계 근본도량 영축총림 통도사 율주로 한국불교 정통 계맥 부흥을 위해 정진중인 해남 스님을 찾았다. 출가 전 <맹자> 등을 읽으며 사람 사는 도리에 고민이 많았던 스님은 인(仁), 의(義)를 실천한 성군(聖君)도 죄 없는 이만 죽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생각,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은 남을 짓밟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풀 벌 때 잘린 마디에서 액이 솟는 것이 피로 보였습니다. 생명을 죽이며 사는 것이 아닌 살리며 사는 방법을 고민하다 출가했지요.” 20세 가출하듯이 찾은 관음사에서 집일하며 밤이면 주지 현극(玄極) 스님에게 시 한수씩을 배웠다. 제대 후 현극 스님을 다시 만나지 못한 스님은 군대 시절 부산 대각사에서 법문 들은 것을 인연으로 경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이 통도사 강원과 남양주 흥국사 강원 등을 거쳐 결계중인 묘관음사를 찾았을 때다. 향곡 스님이 “결제 중에 방부 불이는 것이 가담카나 하나?”고 묻자, 해남 스님은 “발심하는 순간이 결제”라고 대답했다. “말은 그럴 듯해도 안 된다”는 향곡 스님에게 해남 스님은 9년 절을 율렸

과 도거(徒擧·산란함)에 공부가 앞으로 가는 지 뒤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차라리 경전이나 대대로 봐야겠다는 생각에 해남 대흥사를 찾아 공부했지요.” 해남 스님은 1977년 운기(雲起) 스님에게 전강 받았고,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일본 대정대(大正大)에서 학부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일본 유학 후 해인사 강주를 시작으로 해남 스님은 중앙승가대 등에서 후학양성에 힘써왔다. 율해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교수를 정년퇴임한 스님은 “불전 번역을 위해서는 언어 구사뿐 아니라 작가의 마음에 계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언·다라니 등도 우리말로 풀이하려는 세태에 대해 스님은 ‘다라니(陀羅尼)’처럼 비밀한 뜻이 있는 것, ‘바가범(薄伽梵)’ 같이 한 단어가 여러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염부제수(閻浮提洲)’처럼 중국에 없는 단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와 같이 고래로 번역하지 않는 말, ‘반야’처럼 존중의 의미에서 번역하지 않은 것 등 현장의 ‘오종불번(五種不翻)’을 인용해 우려했다. “한 일본인이 스님에게서 ‘오무기고무기 니쇼한(大脈小麥二升乎, 보리나 밀이나 두되 반)’이라는 말을 듣고, 화두삼아 궁리하다 신통을 얻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금강경>의 ‘응무소주

반면 율(vinaya)은 출가 수행자들이 승단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으로 타율적이다. “출가자가 율을 어기면 오연칠취(五篇七聚)라 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율을 비구 250계와 비구니 348계라 한 것은 타인의 제재(制裁)가 무서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닌, 주인공 된 삶으로 ‘스스로’ 계의 정신으로 율을 지키려는 의미에서 계라 번역한 것입니다.” 해남 스님은 “계(戒)에 8만4000법문이 모두 담겨있다”고 말했다. “부처란 자비·복덕·정정·진실·지혜롭게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불살생(不殺生)계는 자비를 키우고, 불투도(不偷盜)계는 복덕을 기르며, 불사음(不邪淫)계는 청정한 삶을 유지하며, 불망어(不妄誑)계는 진실된 삶을, 불음주(不飲酒)계는 지혜롭게 사는 길을 뜻합니다. 오계만 잘 지키면 그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서울의 사대문도 오계를 말합니다. 흥인지문(동대문)은 측은지심으로 길러지는 인(仁)으로 불살생을, 서쪽의 돈의문(서대문)은 불투도를, 남쪽의 승례문은 불사음을, 북쪽의 홍지문은 지(智)를 뜻해 불음주를, 중앙의 보신각의 신(信)은 불망어를 뜻하지요.”

스님은 불살생계를 예로 삼취정제(三聚淨戒, 삼취정계·삼선법계·삼중생계를 강조했다. “살생은 목숨 가진 것뿐 아니라 남의 아이디어를 사창시키는 것도 살생이예요. 살생 없는 수준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자비심을 지니는 것이 진정한 불살생계지요. 머리는 좋으나 행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사람을 위해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나, 병든 사람 등을 위한 복지사업 등도 모두 불살생계를 지키는 것으로 삼선법계로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해남 스님은 “불투도계는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 불사음계는 심신정정을 넘어 사회와 국토를 청정하게 해 불국토를 이루는 것, 불망어계는 바르고 진실된 말 등을 통해 믿음(信)이 가득한 사회를 만드는 것, 불음주계는 지혜롭게 사는 것을 뜻한다”며,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겸한 지계를 강조했다. “술 먹고 낮잠 자던 사람이 있었어요.(불음주계) 잠자는데 시끄럽다며 닭을 죽였지요.(불살생계) 죽인 닭을 뜯어 먹고는(불투도계) 닭 찾으러 온 여주인을 겁탈까지 했어요.(불사음계) 관아에 끌려가서는 아무 짓도 안했다고 거짓말했지요.(불망어계) 부처님 연기법처럼 하나의 계에도 나머지 계가 모두 담겨있습니다. 불자라면 삼보에 귀의하고, 사홍서원과 오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해남 스님은 “스스로”를 통해 부처님 삶을 증명해 나가는 선지식이었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현 기자 wanahollo@hanmail.net

Advertisement for Bumyang Metal Boxes (범양금고 불전함).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red metal box with gold patterns and the text '범양금고 불전함'. It lists various models and prices, such as '78만원' and '68만원'. A diagram shows a keyhole and a lock mechanism. The ad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Bumyang Metal Boxes, including a phone number and website.